

풀꽃교회(서천성 목사)가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감사선물을 하다



우리 매곡마을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풀꽃교회(서천성 목사)가 어버이날을 맞아 5월 4일 경로 회원을 위한 감사의 선물을 전했다. 맛있는 과자와 보리 건빵, 구포국수, 대만파스 등을 정성껏 준비하여 직접 전달하는 수고를 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방충망 무료

교체 신청서를 함께 넣어 이번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방충망 교체 작업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날을 맞아 매곡마을의 귀한 아동들을 위하여 학용품등 선물을 전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잠16장 31절)

“2025년 어버이날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70부터가 시작입니다. 올해도 늘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구합니다.”



서천성 목사님의 섬기는 모습에 존경합니다.

글, 사진 서원수 경로회 총무

2025년 양산시 평생학습마을학교 선정

매곡경로당이 양산평생교육원에서 ‘치매 없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해 양산시 위탁사업으로 실시하는 평생학습마을학교로 선정되었다.

4월 7일부터 32회차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노인건강교육, 실버인지교육, 노인미술치료,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로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마을은 작년과 올해에 사고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부지런히 배워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글 서원수 경로당 총무

노인복지제도를 활용한 가정 지키기

4월 19일 풀꽃카페에서 ‘노인복지제도를 활용한 가정 지키기’란 제목의 매곡마을 강좌가 열렸다. 마을주민 20여명이 참석하여 4개 분야의 전문가가 강의를 하였다.

서유기 매곡동 통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면 좋겠으나 장기 요양기관을 통한 보살핌을 받아야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1.복지용구, 2.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3.주간보호센터, 4.요양원을 소개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강화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 강의 자리를 마련하고 감사 추천을 진행한 풀꽃교회 서천성 목사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다음에도 좋은 강좌가 계속 열리길 기대한다.



글, 사진 경로당 총무 서원수

작가 강열우, 『조선각설이』로 백제문학 신인작가상 수상

일제강점기 거지들의 숨겨진 독립운동사 조명한 감동 소설

2025년 6월 21일, 강열우 작가(부산예술대학교 교수)가 『조선 각설이』로 백제 문학 제26호 신인작가상(소설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작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간 거지 무리 ‘각설이’들이 독립운동의 전령사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조선각설이』는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로 취급되던 이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전국 장터를 누비며 공원과 언어로 민중의 마음을 일깨우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무명의 인물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던 것을 모티브로 하여, ‘보이지 않았던 민중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강 작가는 “조선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나라를 품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썼다”며 “문학이 다시 사람을 살리는 시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수

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열우 작가는 2024년 2월 수필집 『로망에 대하여』를 출간한데 이어, 2025년 1월에는 『할머니와 검정과양이』, 6월에는 『당신의 마음 안녕하십니까?』를 각각 전자책으로 출간하며 왕성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양산 매곡마을에 살고 있는 강작가는 매곡마을의 사계를 종이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글, 송순금 / 사진 백제문학 제공



경로회 봄나들이 다녀오다

4월 28일 경로회원들이 문경새재와 속리산 범주사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서병훈 경로회장을 비롯한 경로회원과 서유기 마을이장과 정혜소 부녀회장과 부녀회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문경새재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수월하게 영화세트장을 구경하고 버섯전골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속리산 범주사는 제법 걸었지만 시간이 없어 꼼꼼하게 다 못 본 고찰이었고, 오는 길에 정이품송을 보았다.

각설이로 분장하여 흥겹게 춤을 추고 멋진 노래실력을 과시하는 모습에 재미있었다.

어르신들 나들이에 마을 주민을 비롯한 여러분의 찬조와 후원으로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경로회원 여러분께서는 건강 잘 챙겨서 다음 나들이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글, 사진 서원수 경로회 총무



봄

서창중학교 1학년 서문영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추억을 주는 봄
새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봄
겨울이 내린 눈을 치워 주는 봄
비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는 봄
그러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벚꽃잎 한 잎
참채처럼 조잘대던 아이들은 비람에 날리는 벚꽃잎을 잡고
좋다고 까르르

나도 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봄 같은 사람

‘서문영은 강동택 서진배, 윤필환의 아들인 서정호의 딸입니다.

달성서씨 시조묘역 한식묘향 참가



달성서씨 대종회에서 4월 5일에 2025년 을사년 시조묘역 한식묘향(시조~5세조)을 봉행하였다. 대구시 동구 용천로 30길 54-7 중삼재에서 모여 시조묘역에서 거행하였다. 많은 종원이 참석하였는데 증산문중에서도 약 10명이 참석하였다.

글, 사진 서영수 증산문중 총무



달성서씨 감찰공파 울산·매곡문중 돈목계 정기총회

4월 26일 달성서씨 증산문중 제1인 행의당에서 달성서씨 감찰공파 울산·매곡 문중 돈목계 정기총회가 열렸다.

돈목계는 8세조 諱(휘) 乾孫(건손) 후손들의 거주지역을 교차 방문하여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하면서 설립 취지와 정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

그동안 매년 음력 3월 10일에 울산과 양산을 교차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회의 날짜를 4월 넷째 토요일에 개최하고 교차 방문없이 편리하게 참석 할 수 있어서 50여명의 많은 회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행의당에서 개최한 모임이다. 서연호 회장의 감사인사가 있었다. 작년과 같이 행의당에서 머느리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내년에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글, 사진 서영수 돈목계 총무

증산문중 청년회

울산 서인충장군묘 참배 등 단합행사 가저

4월 13일 증산문중 청년회 회원과 가족 40여명이 울산과 경주를 다녀왔다. 울산 동구 동부동 산127번지에 위치한 망조당 서인충장군의 묘소를 참배하고 망조대를 방문하였다.

망조당 서인충 장군은 울산의병 3천여명을 규합하여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 하였고 부산진 수군첨절제사를 역임하였으며 ‘가선대부 병조참판’ 추증을 받은 선무원종 임란 1등 공신이다.

한편, 증산문중 주부공 서몽호 의병장은 서인충 장군의 6촌 형님으로 의병활동을 함께한 임란 장의공신이다.

글, 사진 증산문중청년회 총무 서상태



달성서씨 감찰공파 증산문중 두자망자파종회 회수회 개최

4월 27일(일) 12시 매곡동 “장수하늘소” 음식점에서 두자망자 파종회(회장 서창기)의 춘계 화수회(花樹會)가 열렸는데,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화수회는 종원간의 친목을 도모코자 매년 4월 넷째 일요일에 개최한다. 올해는 음력 윤6월이 있어, 예년보다 늦은 문중별초(9/28일), 문중시제(11/28 일) 및 파종시제(11/30일) 때에는 상호연락, 많은 종원이 참석키로 결의하였다.

화수회를 마친 후, 매곡동 “한국궁중꽃박물관”을 단체 관람하였다..

글, 사진 서기수 종원



華谷 徐東雲의 漢詩

孟夏即景(맹하즉경)

成陰新綠錦圍時(성음신록금위시)

孟夏山河絕景知(맹하산하절경지)

滿眼黃波動役動(만안황파동역동)

遮陽翠幕帶鶯移(차양취막대영이)

江邊遊鶴探魚餌(강변유학탐어이)

野裏作農傾酒厄(야리작농경주치)

佳節勝花芳草茂(가절승화방초무)

千峰萬壑繡靑期(천봉만협수청기)

초여름 경치를 읊다

신록이 녹음을 이루니 비단을 두른 때에

초여름의 산하가 절경임을 알겠네

눈에 가득한 황금 물결(보리)은 일꾼의 움직임을 바쁘게 하고

햇빛을 가린 비취색 늘어진 버들은 피조리가 옮겨 다니고

강변에 노는 학은 물고기 먹이를 탐하고

들판에 일하는 농부는 술잔을 기울이네

꽃보다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풀이 무성하고

많은 봉우리와 골짜기마다 푸르게 수놓음을 기억하네.

선운사 꽃 길

-박순이-

선운사 간다기에 따라나선 길
동백꽃 병풍처럼 펼쳐진
산사에 들어서니
내 마음 출렁이네

살다보니

꽃길이었던적 별로 없어

기슴 흥 내려앉은

기억만 뚜렷한데

아늑하고 평온한

산사의 기쁨이런가

날 내려 놓으니

내 마음 꽃길이네

세상에 흐려졌던 마음

두손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되네이네.

[추억의 사진]



예림택 머느리 송영숙 기자가 제공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많은 분들을 생각나게 하고, 살아계신 분이 몇 안되는 귀한 사진이다. 집에 이런 보물을 소장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서원수 010-9289-1046)

세상 속 긴 호흡

서영미

가파른 삶 한 자락 노을빛으로 물게 여미어
여린 붓끝 휘주어 호흡 긴 그림 하나 그린다

물이 산이 되고 산이 물이 되는 세대.

희미한 천지에 짙은 윤회를 덧칠한다

산사의 詩仙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詩.

폭풍우 넘나드는 삶을 흥건히 적서낸다

말간 低音, 하늘은 오늘도 귓전에 되뇌인다

“흐르는 개울물처럼 살아라”

“구르는 자갈들처럼 살아라”